

“전북을 시·바이오생명 혁신거점으로”

민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대표 “새만금 RE100 산업 구축에 당차원 뒷받침” 약속
 2차 종합특검법 등 설 연휴 전 마무리 강조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사에서 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정청래)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당사에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정청래 당대표, 황명선·서상석·박지원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부총장, 권항엽 조직부총장 이지는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전북에선 유준병 도당위원장과 이성운·신영대·이원택·박희승·한병도·안호영 국회의원, 송태규 익산시갑지역위원장이 함께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026년 전북 국가예산은 10조3884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우주 방사선영향 평가용 사이클로트론 구축을 통해 전북을 AI·바이오생명·우주융합 혁신거점으로 키워 나가는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전북재활병원 건립 등 민생·SOC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한 만큼 앞으로 잘 키워나갈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당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하고 전북의 속원사업인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서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원 참여 완전 경선, 가장 공정한 경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유준병 위원장은 정청래 당대표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북 국가 예산 확보와 피지컬 AI 우주방사선 사

이클로트론 연구시설,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요 현안을 각별히 챙긴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 3중 소의 해소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의 노력에도 전북도민들이 지켜보기엔 제대로 행거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전북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새만금 SOC 조기 정상화, 전주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지원 체제 구축,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전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함께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의 새만금 이전'에 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어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유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주시에 소재한 남부시장을 방문해 연말 민심 청취에 나섰다. 정청래 당대표는 상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전주를 찾는 이유는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 소의를 반드시 뛰어 넘기 위해서"라며 "2026년부터는 전북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활짝 웃도록 당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진원지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서 전북 발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25년 전북자치도 명장 증서·명패 수여식. 지난해 12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증서·명패 수여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방서진 이·미용 분야, 김상곤 공예 분야, 박정섭 제과·제빵 분야에게 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혁신당 도당 “지난해 실천 활동 첫 성과, 윤석열 파면 연대투쟁”

2025 실천 활동 5대 뉴스 발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북 지역에서 전개한 주요 정치 활동을 정리한 '2025 실천 활동 5대 뉴스'를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첫 성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연대투쟁을 꼽았다. 헌정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정의 투쟁에 나서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선거운동이다. 도내 전 지역에서 합동 유세와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며 정권 교체에 대한 정치적 결집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조국 대표의 제차 전북

순회 성료다. 조 대표는 정음·부안·고창 등을 방문해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본격적인 정책·실력 경쟁을 선언했다. 네 번째로는 '혁신정치학교'와 여성성장치키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 35년 일당독점 구조로 인한 각 시·군의 부정부패와 정책 실패 실태 조사 착수를 들었다. 헌정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렴도 하락과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점검하며 지역 권력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당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핵심 과제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사람을 살피는 행정, 그 길이 제 인생” | '퇴임' 강영석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국장

“공직을 떠나는 순간이 아쉽기보다는 제 삶에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
 20여 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보건과 복지, 교육 행정의 현장을 두루 거치며 도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온 한 공직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1970년 전북 김제 성덕면 출신인 강 국장은 김제 중앙초교와 중앙중학교를 거쳐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2004년 9월 김제시 보건소 관리 의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진료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예방접종 문진, 방문 보건, 재가 환자 건강관리까지 주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만났다. 그는 “행



정 이전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회상한다. 이 시기는 그가 평생 지켜온 공직 철학의 뿌리가 됐다. 2016년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역학조사관으로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섰고, 이듬해 보건료과

장으로 승진해 전북 공공보건 행정을 이끌었다. 공직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은 단연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강 국장은 “코로나는 행정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행정이 왜 도민 곁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서로를 배려해 준 도민들의 모습이었다. 그는 “감염병은 누군가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당시 헌신적인 대응으로 그는 전북도의 정은경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후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익산시 부시장으로 재임하며 기초자치단체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도 그의 행정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

이었다. 퇴임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여러 퇴직 국·과장 틈에서 유일하게 직접 현장을 방문한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후배들을 부하가 아닌 동료로 늘 생각해 왔다”며 “사람은 편안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가장 좋은 역량을 낸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설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으로 부임한 그는 전북도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다지며 교육자들과 행정자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보건과 복지, 교육은 결국 사람의 삶으로 이어져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 세 영역을 연결하는 행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공직 생활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지원 5조4000억 투입... 역대 최대

AI·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경영 회복부터 재도전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경영 회복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모를 조기 시행하고 총 7개 분야의 정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공모에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3,410억원 규모로 담겼다. 이는 전년 대비

5,240억원(64%) 증가한 규모다. 주요 지원 분야는 △기업가정 소상공인 육성 △성장 지원 △소상공인 특화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 지원 등이다. 정책자금의 60% 이상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된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금융 부담을 줄인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도 확대된다. 대환 대상 채무 기준을 20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까지 넓히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은누리상품권을 2026년 총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지류 상품권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바일·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 육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한 '글로벌 상권' 사업이 정규 사업으로 신설돼 6천

내외를 지원하며, 로컬거점 상권과 '유망 골목상권'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6년에는 AI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AI 기반 제품 개발과 서비스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돕는다. 또한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통해 수출형 브랜드 육성과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신청 절차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낸다. 대리대출 비대면 원스톱 신청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정책자금 취급 은행에 포함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

퇴직 신중년 전문인력, 자원 등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 기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신중년 세대가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자문, 멘토링, 교육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신중년에게는 퇴직 이후 보람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사업에는 사회공헌활동 수행 역량과 운영 기반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사회책임투자 등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운영기관은 신중년 전문인력과 연계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관리하게 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이다. 활동 분야는 교육, 복지, 환경, 문화예술, 행정 지원 등이며, 활동 시간은 월 최대 12시간, 연간 48시간 이하로 참여자에게는 시간당 3,000원의 수당과 함께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1만1,000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2025 을지연습 '우수'... 대통령 표창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 을지연습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도 전역에서 실시된 을지연습에서 전북도는 탁월한 위기대응 역량과 민·관·군·경·소방의 협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연습 기간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상황 조치 도상연습의 내실화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 △복수 상황비를 활용한 실질적 합동 대응 능력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표창은 지난 1년간 치밀하게 수립한 계획의 결실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올 1월 1일자 인사 단행

신임 사무처장에 경범훈 이사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조직의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고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며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대비해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경범훈(49) 신임 사무처장(2급, 이사관)의 취임이다. 오는 1월 1일자 부임하는 경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장 중

양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선거연수원 직무교육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선거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사무처장 취임과 더불어 6급 이상 공무원 20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관련 명단 14면> 한편, 이번 인사는 2026년 1월 1자로 시행됐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